

“청년 울리는 프랜차이즈”... 임금체불 등 법위반 수두룩

고용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근로감독 결과 발표 감독대상 76개소 264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커피 전문점 등 청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무더기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적인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고객의 폭언에도 별도 조치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로자도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7~10월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3개 분야의 6개 브랜드 총 76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소규모 가맹점 74개소, 전국 단위로 많은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 2개소다.

감독 결과 76개소에서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49개소에서는 328명의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휴업수당 등 총 1억5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직영점 근로자 259명, 가맹점 근로자 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그 결과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주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는 커피·패스트푸드 46.7%, 이미용은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의 경우 32.6%, 이미용은 15.2%만 보장받고 있었다.

직영점의 경우 불규칙한 근무일과 근로시간 운영으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과 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의 폭언·폭행

등을 겪고도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조사됐다. 직영점은 31.2%가 가맹점은 73.9%가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구호 외치는 마늘양파 생산자들 1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 마늘양파 생산자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원숭이두창 3번째 확진자, 42명 접촉

고위험접촉 7명

국내 세 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고위험접촉자를 포함해 총 42명으로 파악됐다.

이영민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16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세 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 대상 역학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역학조사팀은 확진자가 첫 의심 증상을 호소했던 11월8일을 기준으로 하루 전인 11월7일부터 동선 등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위험접촉자 7명, 중위험접촉자 9명, 저위험접촉자 26명 등 총 42명의 접촉자가 파악됐다.

이 팀장은 “접촉자 규모는 이후 조사 진행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세 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지난 11월4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입국한 내국인이다. 입국 당시에는 무증상이었으나 8일부터 발열과 발한, 어지러움 증상이 있었고 13일 전신 증상 및 피부병변 통증이 발생해 경기도 소재 병원에 내원했다.

병원에서는 13일 당일에 진료 의료기관에서 1399 콜센터 신고를 통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알렸다. 14일에 병상이 배정돼 격리 상태에 들어갔다. 유전자 검사 결과 지난 15일에 양성인 확인됐다.

현재 확진자는 지정 치료기관에 입원 중이며 국소 통증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시

광주 하수도관 정비 공사 도중 철판 떨어져...30대 부상

철판·흙더미에 다리 깔려, 생명에는 지장 없어

16일 오전 10시 7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도로 위 하수도관 정비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철판이 떨어졌다.

이 사고로 떨어진 철판과 흙더미에 다리가

깔린 30대 남성 인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광주 남구로부터 해당공사를 수주 받은 모 시공사 소속 직원으로 철판을 하수도관

주변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동취재본부

치매 80대 노인 실종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외판 농경지 발견

치매 의심 증상이 있는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신고 나흘 만에 외판 농경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58분께 광주 광산구 임곡동 한 육교 인근 논에서 A(87·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1일 남구 월산동 자택을 나선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가족은 외출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치매의

심 증상이 있는 A씨가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 형사 3개 팀 20여 명이 수색을 벌여 신고 접수 나흘 만에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별다른 외상 또는 범죄 혐의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길을 잃고 헤매던 A씨가 자택에서 40여 km 떨어진 곳에 이르러 추위를 이기지 못해 숨진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